

# 우즈베키스탄 경제 브리프

## 1. 대내외 정세 ..... 1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COP28(두바이) 참석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헌법의 날 계기 연설
- 사이도프 외교장관, 카타르 방문
-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 우즈베키스탄 실무 방문
- 외교부, 자하르 프릴레핀 ‘공정 러시아당’ 공동의장 발언에 대한 우려 표명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최근 부패 혐의 정부 인사 입건 사태에 대해 언급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러시아 실무 방문

## 2. 경제·산업 동향 ..... 4

- 23.12.1. 기준 우즈베키스탄 외환보유고 328.9억불 기록
- 우즈벡중앙은행, 기준금리 현행 14% 동결
- 우즈베키스탄, 23.1-11월간 금 수출액 81억불 기록
- 23.12.1. 기준 우즈베키스탄 내 외국자본기업 수 13,353개
- 세계은행, 2023년도 對우즈베키스탄 해외송금액 161억불로 예측
- 국제통화기금, 2024년도 우즈베키스탄 경제 전망 발표
- 우즈베키스탄, 23.1-11월간 자동차 35.5만대 생산

## 3. 에너지·인프라 동향 ..... 7

-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시장경제 전환 가속화 지원 예정
- 아시아개발은행, 우즈베키스탄 농촌 도로 700km 개선 사업 지원 예정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동절기 대비 현황 점검
- 로사톰, 우즈베키스탄 원전 '건식 냉각탑' 건설 검토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자동차 및 농기계 개발 현황 점검
- 미르자마흐무도프 에너지부 장관, 2024년도 전력 수요 100% 충족 목표 발표
- 에너지부, 에너지 소비에 대한 새로운 제안 발표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태양광·풍력발전소 개소식 참석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주 소 Afrosiab st. 7, Tashkent, 100029, Uzbekistan  
전 화 +998-71-252-3151~3  
이 메 일 uzkoremb@mofa.go.kr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uz-kor/index.do>

※ 본고의 내용은 우즈베키스탄 내 관련기관, 언론 등 발표자료에 근거하였으며,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대내외 정세

##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두바이市) 참석

- 12.1.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기후변화를 강조하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
  - △파리협정 틀 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합의, △G7, G20 국가들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포용적 방안 논의, △국제기후기술엑스포허브 창설, △타슈켄트 녹색대학을 기반으로 개최될 기후과학포럼에 적극 참여, △‘Climate Migration’ 컨퍼런스(2024년, 우즈베키스탄) 개최 등 제안
- 또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노력을 강조하고 사마르칸트 국제기후포럼(2024년) 개최 지지를 요청

##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헌법의 날 계기 연설

- 12.8.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New Uzbekistan’ 건설을 위한 대규모 개혁의 중요한 법적 요소인 23.4월 개헌안 채택 이후 맞이하는 헌법의 날의 의미를 강조
  - 최근 △부패인식지수 32단계 상승, △언론자유지수 28단계 상승, △법치지수 13단계 상승 등 국제무대에서 개혁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
- 국민의 이익과 명예, 존엄 보장을 위해 개혁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달성해야 할 과제들을 설정
  - △시민 참여 확대, △헌법의 실질적 적용, △인권, 자유, 정당한 이익 보호 강화, △국민과 국가 간 관료적 장벽 및 부패 요인 제거, △정부기관 및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 강화 등을 과제로 언급

## □ 사이도프 외교장관, 카타르 방문(12.10-11.)

-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타니 총리 겸 외교장관 접견) 양측은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무역 및 경제 협력 확대, △문화외교 강화 등 방안을 논의
- (셰이크 칼리파 빈 자심 빈 무하마드 알 타니 상공회의소 소장 접견) 양측은 △경제 외교 강화, △양국 경제계 간 관계 발전, △무역 및 투자 분야 잠재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 o (자심 빈 사이프 빈 아흐메드 알 술라이티 교통부 장관 접견) 양측은 양국 간 물류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운송 회랑 구축에 대한 의견을 교환
- o (주카타르 우즈베키스탄대사관 개관식 참석) 사이도프 외교장관은 최근 우즈베크-카타르 양자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양국 대사관 개관이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23.5월 주우즈베키스탄 카타르 대사관 개관

## □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 우즈베키스탄 실무 방문

- o (정상회담, 12.19.) 양국 정상은 △정치적 대화 강화, △무역, 경제, 투자, 문화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
  - △다양한 수준의 교류 지속, △양국 외교공관 개관, △무역량 증대,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협력 현황을 긍정적으로 평가
  - △녹색에너지, 산업, 농업, 인프라, 금융, 교육, 의료, 관광 등 분야에서 공동 투자 프로젝트 추진, △운송 및 물류 분야 협력 확대 등 방안 검토
- o 또한, 2024년도 양국 정부 간 회의, 문화행사 등 개최 일정을 논의하고 국제·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 24.2월 도하市에서 개최될 제1차 정부 간 위원회 회의, 경제협의회 회의, 비즈니스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
  -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외교장관급 조정위원회 설립 방안을 논의
- o (국제 반부패상 시상식\* 개최, 12.19.) 양국 정상은 분야별 반부패상 수상자들에게 시상
  - \* 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Excellence Award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부패 근절은 모든 사람, 민주 사회,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여 상을 수여하는 등 시상식을 높이 평가
- o 또한, 'New Uzbekistan'의 민주개혁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패 근절을 위한 계획 및 과제를 제시
  - △투명성 보장, 정부기관의 책임 강화, 정보공개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2030년까지 국가반부패전략을 수립 및 시행, △반부패 경험 교환 및 대화 구축을 위한 부패문제 연구센터 설립, △해외기관과의 교류 강화를 통한 반부패청의 역량 강화, △UN 프로그램 도입 등 청소년 대상 반부패 교육 확대, △언론의 역할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미디어 포럼 개최 등

□ 외교부, 자하르 프릴레핀 ‘공정 러시아당’ 공동의장의 발언\*에 대한 우려 표명

\* 프릴레핀 공동의장은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 출생률을 높이고 우즈베키스탄 등 새로운 영토 합병이 필요하다고 발언

○ 12.20. 외교부는 말기노프 주우즈베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여 프릴레핀 공동의장의 발언이 도발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으며, 양국 국민 간 우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 또한, 동 발언이 우즈베크-러시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및 동맹관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

○ 말기노프 대사는 프릴레핀 공동의장의 발언이 러시아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한 바 없다고 강조

※ 12.21. 자카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프릴레핀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며, 러시아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발표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최근 부패 혐의 정부 인사 입건 사태에 대해 언급

※ 12.2. 타슈켄트 내무국은 범죄 집단과 부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부 공무원, 사업가 등 100여명을 부패, 갈취 등 혐의로 체포

※ 최근 보이토프 前 농업부 장관, 술타노프 나망간주 부주지사 등 입건

○ 12.22.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정부 인사 입건 사태와 관련하여 이는 부패 및 범죄 근절을 위한 조치라고 언급하며, 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범죄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강조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러시아 실무 방문

○ (CIS 비공식 정상회의, 12.26.) 참석자들은 2023년도 다자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2024년도 협력 과제, △역내 다각적 관계 발전 전망,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 동 행사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알리에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베르디무хам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파쉬냘 아르메니아 총리 등 참석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역내 실질적 협력 확대 및 협력 메커니즘 효율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

○ (우즈베크-러시아 정상회담, 12.26.) 양측은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교역량 증대, △협력 프로젝트 촉진 등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

## 2. 경제·산업 동향

### □ 주요 경제지표

#### ■ 생산·소비(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벡통계청

- 산업생산(조숨) : ('22.11월) 487.0 → ('23.11월) 578.8(6.0%)( '22년: 551.1)
- 소매판매(조숨) : ('22.11월) 275.8 → ('23.11월) 268.3(8.0%)( '22년: 319.3)
- 물가(CPI)(%) : ('22.11월) 12.3 → ('23.11월) 8.8(전월비 1.1%)( '22년: 12.3)

#### ■ 대외교역(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벡통계청

- 총 교역액(억불): ('22.11월) 454.3 → ('23.11월) 573.1(26.2%)( '22년: 500)  
※ '23.11월(억불): 교역 573.1(26.2%), 수출 232.0(30.6%), 수입 341.1(23.3%), 수지 △109.0
- 對한 교역(억불): ('22.11월) 21.6 → ('23.11월) 21.1(△2.2%)( '22년: 23.4)  
※ '23.11월(백만불): [우통계] 교역2,111.7(△2.2%), 수출 37.2(0.8%), 수입 2,074.6(△2.3%), 수지 △2,037.4  
[韓통계] 교역2,282(13.3%), 수출 89(240.8%), 수입 2,193(10.3%), 수지 △2,104  
\*출처: 한국무역협회

#### ■ 금융·외환(전년동기비) \*출처: 우즈벡중앙은행

- 기준금리(%) : ('22.12월) 15.0 → ('23.12월) 14.0(1.0%p)  
※ 20.9월 이후 14%를 유지, 러-우 사태 이후 22.3.17. 17%로 인상 → 22.6.10. 16% → 22.7.22. 15% → 23.3.17. 14%로 인하
- 숨/달러 환율 : ('22.12월) 11,225.5 → ('23.12월) 12,338.8(절하율 9.9%)( '22년末:11,225.5)
- 외환보유고(억불): ('22.12월) 334.4 → ('23.12월) 328.9(금보유량 237.2)( '22년末:357.7)

### □ 23.12.1. 기준 우즈베키스탄 외환보유고 328.9억불 기록

- 12.9. 우즈벡중앙은행(CBU)은 23.12.1. 기준 우즈베키스탄 외환보유고는 328.9억불이며, 그 중 금 보유액은 전체 외환보유고의 72.1%인 237.2억불이라고 발표
  - 최근 금 수출량이 늘어나며 금 보유량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
  - ※ World Gold Council의 발표에 따르면, 23.10월 우즈베키스탄이 금 수출국 세계 1위 차지

## □ 우즈벡중앙은행, 기준금리 현행 14% 동결

- 12.14. 우즈벡중앙은행(CBU)은 인플레이션율이 2016.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8.8%까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행 14%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

※ 우즈벡중앙은행은 20.9월 이후 14%를 유지하다가 러-우 사태 이후 △22.3월 17%, △22.6월 16%, △22.7월 15%, △23.3월 14%로 조정

## □ 우즈베키스탄, 23.1-11월간 금 수출액 81억불 기록

- 12.21.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3.1-11월간 대외교역액은 전년동기비 26.2% 증가한 573억불이며, 그 중 수출은 232억불(30.6% 증가), 수입은 341억불(23.3% 증가)을 기록하였다고 발표

- 특히 금 수출액은 전년동기비 2.3배 증가하여 역대 최대인 81억불 기록

## □ 23.12.1. 기준 우즈베키스탄 내 외국자본기업 수 13,353개

- 12.21.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12.1. 기준 우즈베키스탄 내 외국자본기업 수는 13,353개이며, 국가별 외국자본기업 수는 △1위 러시아(2,889개), △2위 중국(2,125개), △3위 튀르키예(1,802개), △4위 카자흐스탄(994개), △5위 한국(703개) 등

## □ 세계은행, 2023년도 對우즈베키스탄 해외송금액 161억불로 예측

- 12.22. 세계은행(WB)은 2023년도 對우즈베키스탄 해외송금액은 전년대비 6억불 감소한 161억불로 GDP의 17.8% 수준일 것으로 예측

- △러시아 내 우즈벡 이주 노동자 수 감소, △루블 대비 숨 환율 강세, △러시아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러시아에서 유입되는 해외송금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

## □ 국제통화기금, 2024년도 우즈베키스탄 경제 전망 발표

※ 국제통화기금 대표단은 12.11-19일간 타슈켄트를 방문

- 12.23.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도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대해 해외송금액이 감소하였지만 △예산 지출 증가, △급여 수준 향상, △수출 증가 등에 따라 5.7%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다고 평가

- △중앙은행 기준 금리 유지,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식품 및 에너지 국제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은 전년대비 3%p 하락한 9% 기록

- 또한, 2024년도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 5.2%로 둔화, △인플레이션 11%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긴축 통화정책 및 예산 최적화 필요성을 언급
  - ※ 우즈벡 경제재무부는 2024년도 경제성장률 5.8%, 인플레이션 8-10% 수준으로 전망
  - 2024년도 경제 전망은 긍정적인 편이나, △주요 교역국(특히 중국, 러시아)의 성장률 둔화, △대외 금융여건의 긴축화 등 위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
  - 금융 안정성 유지, 구조적 개혁 지속 추진 등은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우즈베키스탄, 23.1-11월간 자동차 35.5만대 생산

- 12.27. 통계청은 23.1-11월간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동기비 25.9% 증가한 35.5만대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생산이 증가하고 화물차 생산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
  - 23.1-11월간 자동차 수입 규모는 전년동기비 2.2배 증가한 15.6억불 기록
  - 그 외 △배터리 28.9% 증가, △엔진 13.8% 증가, △휠 17.5% 감소

### 3. 에너지·인프라 동향

#### □ 주요 에너지통계

##### ■ 에너지 생산 및 증감률 (전년 동기비) \*출처: 우즈벡통계청

- 전력(십억kWh):('22.11월) 66.7 → ('23.11월) 69.7(4.5%) ('22년:71)
- 가스(bcm):('22.11월) 47.3 → ('23.11월) 42.8(△9.6%)('22년:51.7)
- 석유(천톤):('22.11월) 1,898 → ('23.11월) 1804(△4.7%)(※가스콘덴세이트 포함)
- 석탄(천톤):('22.11월) 4,813 → ('23.11월) 5,731(19.1%)

##### ■ 에너지 가격 및 증감률 (전년 동기비) \*출처:(전기)우즈벡국가전력망공사,(가스/가솔린/디젤)우즈벡석유가스공사

- 전기(UZS/kWh):('22.12월) 450 → ('23.12월) 900(100%) (※산업용) ('22년: 450)  
( '22.12월) 295 → ('23.12월) 295(0%) (※가정용) ('22년: 295)
- 가스(UZS/m<sup>3</sup>):('22.12월) 1,000 → ('23.12월) 1,500(50%) (※산업용) ('22년: 1,000)  
( '22.12월) 380 → ('23.12월) 380(0%) (※가정용) ('22년: 380)
- 가솔린(UZS/l):('22.12월) 10,000 → ('23.12월) 12,200(22%) (※Ai-95 기준) ('22년: 10,500)
- 디젤(UZS/l):('22.12월) 9,500 → ('23.12월) 12,400(30.5%) ('22년: 12,400)

#### □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시장경제 전환 가속화 지원 예정

- 12.11. 세계은행(WB) 이사회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시행하는 차세대 경제·사회·기후 개혁 추진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개발 정책 운영(Development Policy Operation)을 승인
  - 세계은행은 △시장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민간 부문 참여 확대, △취약계층의 사회적, 법적 보호 강화, △기후변화, 환경보호 등 시급한 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농업, 철도, 화학, 에너지 등 주요 분야 발전을 위해 총 8억불 규모 재정 지원 (Concessional and low-cost Loans)을 제공할 예정

#### □ 아시아개발은행, 우즈베키스탄 농촌 도로 700km 개선 사업 지원 예정

- 12.12.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즈베키스탄 농촌 도로 700km 개선을 위한 2.4억불 규모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동 사업은 도로 안전성 및 기후 탄력성 향상을 통해 연결성

강화, 농촌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12개 州와 카라칼팍스탄 공화국의 지역 및 농장 간 농촌 도로를 대상으로 제방 강화, 교량, 배수로 및 배수 시스템 개선 예정

####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동절기 대비 현황 점검

- 12.12.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 동절기 대비를 위한 △저장 자원 활용, △인프라 현대화, △기업 등 애로사항 해소 등 현황을 점검
  -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타슈켄트市는 △새로운 변전소 2기(286MW) 설립, △변압기 (228개) 및 전력선(1,130km) 현대화, △초고압 케이블(260km) 설치 등을 진행
- 또한, 추운 날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료 공급 중단, 전력 공급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
  - 전기 및 가스 공급 관련 24시간 비상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자재 등을 구비해놓도록 지시
  - 에너지자원의 합리적 소비, 불법 사용 근절 등 중요성을 언급

#### □ 로사톰, 우즈베키스탄 원전 ‘건식 냉각탑’ 건설 검토

- 12.13. 러시아 로사톰(Rosatom)은 우즈베크 정부와 원전에 ‘건식 냉각탑’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우즈베크 수자원 상황을 고려한 방침이라고 언급
  - 폴리나 리온(Polina Lion) 로사톰 지속가능개발부 부장은 2050년에 우즈베키스탄의 물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언급하며, 건식 냉각탑 기술은 원자로 냉각시 물 증발을 방지한다고 설명

####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자동차 분야 발전 현황 점검

- 12.15.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현대화, △생산량 증대, △경쟁력 강화, △부품 생산 현지화 등 최근 경제개혁의 성과로 자동차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
  - 2023년도 자동차 생산량 41.5만대 예상
- 또한,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중 전기차 생산 공장(연간 1만대 규모) 가동 개시, △2030년까지 자동차 100만대 생산 등 동 분야 발전 과제를 설정

- 우즈베크자동차공업성(UzAvtoSanoat)의 △개혁 가속화, △생산 모델 확대, △제품 품질 향상, △원가 절감, △경쟁력 강화 등 필요성을 강조

#### □ 미르자마흐무도프 에너지부 장관, 2024년도 전력 수요 100% 충족 목표 발표

- o 12.22. 미르자마흐무도프 장관은 정전, 화재, 오작동 등 불가항력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2024년도 전력 생산량은 수요 100%를 충족할 것이라고 발표
  -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장관을 포함한 에너지 시스템의 모든 인사들은 일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
  - 겨울에 전력 소비가 집중되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소득 증가, △에어컨 사용 확대, △아파트 증가 등으로 여름 소비량도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미 2024년도 하절기 대비를 시작했다고 언급

#### □ 에너지부, 에너지 소비에 대한 새로운 제안 발표

- o 12.22. 에너지부는 전기계량기 구입 비용을 일반가정과 기업이 부담하고, 사업자에 대한 가스 및 전기 사용료 100% 선불제 재도입을 제안
  - 기업은 24.1.1부터, 일반가정은 24.4.1부터 전기 계량기 구매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우즈베크지역전력망공사(REG)의 재정 부족 및 수요 급증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
  - 또한, 24년부터 사업용 가스, 전기 요금에 대한 100% 선불제 시행 계획을 발표
    - ※ 사업용 가스, 전기 100% 선불제는 2017.7월~2019.2월간 시행, 이후 선불 금액을 50% 인하
    - ※ 가스 비용을 선불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1.4배 높은 요금제가 적용되며, 가스공급기업에 대해서는 가스비의 10%를 벌금으로 청구될 예정
  - 데이터 위조 등 올해 적발된 일부 사업자들의 불법 전기 사용 건수는 3.9만건 이상이며,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3,553억숨이라고 지적

####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태양광·풍력발전소 개소식 참석

- ※ △'Masdar'(UAE) 태양광발전소 3기(총 900MW) 및 풍력발전소 1기(500MW), △'China Gezhoubu Group'(中) 태양광발전소 2기(총 1,000MW) 건설
- o 12.27.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건설된 총 2,400MW 규모 발전소 6기의 운전 개시는 우즈베크 에너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
  - 20억불 규모의 동 프로젝트로 연간 △60억kW 전력 생산, △20억m<sup>3</sup> 가스 절약, △200만 가구에 안정적 전력 공급 보장 등 효과 기대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안정적 에너지 자원 공급 보장, △투자 정책 적극 추진, △에너지 잠재력 활성화, △그린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등 녹색에너지 발전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현재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22기(총 9GW)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전력망, 변압기 등 현대화, △초고압 송전망 구축 등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예정
  - 또한, 외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유리한 조건 조성, 혜택 제공 등을 마련할 계획

## <참고: 우즈베키스탄 경제 개황>

- 국토면적 : 44.9만km<sup>2</sup> (한반도의 약 2배)
- 인 구 : 3,602만명 (2023.1월 기준)
  - ※ 중앙아 5개국 76.5백만명 (카자흐 19.1백만, 타직 9.5백만, 키르키스 6.6백만, 투르크멘 6.1백만)
- 경제성장(IMF)
  - 명목GDP : (2021) 655억불 → (2022) 791억불
  - 1인당 GDP : (2021) 1,983불 → (2022) 2,254.9불
  - 실질성장률: (2021) 7.4% → (2022) 5.7%
- 교역현황 : (2021) 421억불 → (2022) 500억불(19%)
  - ※ 2022년 수출입 : 수출 193억불(16%), 수입 307억불(20%), 무역수지 △114억불
  - ※ 교역순위(억불): ①러(92.8), ②중(74.4), ③카자흐(46.2), ④튀르키예(32.2), ⑤한국(23.4)
- 경상수지 : (2020) △30.4억불 → (2021) △48억불
- 외국투자
  - 외국인직접투자(FDI): (2020) 28.7억불→ (2021) 28.4억불(30.1조숨)
  - 외국투자기업 수 : 총 15,481개 (2023.2.1. 기준)
  - ※ 국별순위: ①러 3,151개, ②튀르키예 2,152개, ③중 2,104개, ④카자흐 1,227개, ⑤한국 903개
- 투자환경
  - 국가신용등급(S&P) : BB-(장기)/B(단기)
  - 기업환경평가(세계은행, Doing Business) : 69위/190(2020) \*20.8월부터 발표 중단
  - 경제자유지수(해리티지재단, Index of Economic Freedom) : 109위/176(2023)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26위/180(2022)
- 지역경제

연번	지역명	면적(천km <sup>2</sup> )	인구(천명)	지역총생산(2022)	
				조숨	비중(%)
1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166.6	1,976.3	29.9	3.4
2	안디잔주	4.3	3,322.8	54.5	6.1
3	부하라주	40.2	2,009.8	45.8	5.2
4	지작주	21.2	1,475.6	27.1	3.1
5	카슈카다리아주	28.6	3,482.6	49.5	5.6
6	나보이주	111.1	1,055.5	66.7	7.5
7	나망간주	7.4	2,997.6	41.1	4.6
8	사마르칸트주	16.8	4,118.4	62.4	7.0
9	수르한다리아주	20.1	2,806.7	34.9	3.9
10	시르다리아주	4.3	896.6	18.1	2.0
11	타슈켄트주	15.2	2,992.6	93.4	10.5
12	페르가나주	6.8	3,976.5	56.0	6.3
13	호레즘주	6.1	1,958.2	32.0	3.6
14	타슈켄트시	0.3	2,955.7	147.4	16.6